

전주시 보건지원 예산 230억 확보

청년건강검진사업·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등 전주표 사업 추진 예산 확보

전주시는 올해도 어르신들과 건강사 각지대에 놓인 청년산모·신생아 등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기로 했다. 5일 전주시보건소는 올해 △국가예 방접종 88억원 △지매안심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 18억원 △산모신생아 건 강관리 지원사업 12억원 △100세 행 복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7000만원 △ 청년건강검진 사업 600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억원 등 총 230억원의 보건지원 예산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건강검진사업과 어르신들

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100 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등 전주 만의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을 확보했다.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의료사각지 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는 청년 무료 건강검진사업은 민선6기 전주시 청년·대학생 관련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올해는 6,000만원을 들 여 청년들의 건강도 챙기기로 했다. 무료 검진대상자는 만9세~30세 청 년으로 보건소는 혈액검사 12종과 요 검사 2종, 엑스레이 검사 등 15종의

검사를 실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전주 청년 5,320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이 중 1,329명이 유소견자로 관병대 검진 후 교육 및 전문의 상담 등을 받았다. 또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 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각 각 50개씩 총 100개 경로당을 찾아가 기초검진과 보건교육, 진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100세 행복경로당 건 강관리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10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총

648회 진행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는 총 3,438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으며 의 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지 역의사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685회, 6,094명의 어르신들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보건소는 올해 국가예방 접종사업을 통해 대상자별 시기에 맞 춘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 방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을 돌봐 시민들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높 이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밤 10시까지 자료실 운영

송천·아중·죽구름·완산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송천도서관과 아중도서관, 죽구름도 서관, 완산도서관 등 전주지역 4개 시 립도서관이 낮 시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밤 10시까지 개 방된다. 전주시는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모사업 에 송천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이 지난 해 이어 올해도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송천·아중· 죽구름·완산도서관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10시

까지 종합자료실을 연장 운영한다. 평일 낮 시간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 려웠던 직장인과 학생 등이 늦은 시 간까지 도서 대출 및 반납 독서회원 증 발급 전자정보코너 이용 등이 가 능하게 됐다. 4개 시립도서관은 이번 개관시간 연 장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책 읽는 기쁨을 알게 하고, 생활 속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역사와 철학, 문학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보건소, 취약계층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동· 청소년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 주기 위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5일 전주보건소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프 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16곳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은 올바른 건 강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강·음주예방·영양·운동·흡 연예방에 관한 교육과 체험 등이다. 보건소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 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예 방진료와 충치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 이다. 또 칫솔과 치약 등 구강위생용 품을 제공 칫솔질 교육을 통해 올바

른 구강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 장을 돕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 교육 과 음주·흡연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강한 식생활 지침 및 식품구성 △저전거울을 이용한 영양교육 △음주가 인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음주저절방법 △고글 을 이용한 가상 음주체험 △담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 △평생건강선서 △간접흡연예방하기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등 전주지역 아동·청소년시설 29곳, 881 명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을 운영했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도담 지역아동센터의 한 초등학생은 "잘 몰랐던 올바른 치아관리법을 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 좋았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채규남 기자

박선이 덕진구청장 이임식

지난 5일 제28대 덕진구청장으로 풍 부한 행정경험과 따뜻하고 섬세한 리 더십으로 구정을 이끌어온 박선이 덕 진구청장의 이임식이 덕진구청 강당 에서 열렸다. 박선이 구청장은 2017년 1월 11일 전주시 첫 여성 구청장으로 덕진구청 장에 취임하여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 가가는 행정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만족하며 시민에게 감동 을 주는 행정 구현에 앞장섰다. 어려운 가정형편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꿈꾸는 아이들 작은 소 원 들어주기 와 같이 이웃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생태 도시 만 들기 위해 도로 시설물 관리와 환경정비 등 다방면에서 꼼꼼하고 세심 한 행정이 되도록 구정을 이끌었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관내 유관기관, 협회 등 대표로 구성된 덕진회와 여 성 봉사단체인 사랑의 울타리 회원들 이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중 안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사를 전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선후배 공무원 과 주민들과 동고동락한 42년간의 공 직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간 직원과 주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구청장으로 힘껏 일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는 덕진구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후배 공무원들 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시민 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첫 여성 구청장인 박선이 덕진구청장의 이임식이 5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열렸다

전주 금상·중인지구 침수피해 방지사업 추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선정... 올해 국비 5억원 등 10억원씩 투입

해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되풀 이되는 하천주변 마을이 안전해진다. 전주시가 지난 5일 삼상침수 지역인 덕진구 금상동 금상천 일원 금상지구 (412,000㎡)와 완산구 중인지구 중인지 일원의 중인지구(304,000㎡)가 올해 정부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개 지구에 2020년까지 각각 75억원과 120억원이 투입돼 저류지 설치와 축제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보 및 낙차공 설치 등 집중호우로부 터 시민 보호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각 지구별로 국비 5억원 등

10억원씩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금상천과 중인지 일대 농토 및 가옥을 홍수 피해로부 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금상지구와 중인지구는 제방높 이가 낮고 여유고가 부족해 집중호우 시 하천연안의 주택 및 농경지가 침 수피해를 입어 지난 2015년 9월 침수 위험지구 '나' 등급으로 지정됐다. 현재 전주지역 재해위험지구는 80여 개소로 총 1,200억원을 투자해 전주천 과 만경강의 홍수위보다 낮아 집중호

우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팔복동 아잠마을 일원(아잠지구)과 진북동 어은·도토리골 일원(어은지구), 전 미동 진기들 일원(진기들지구) 등 7 개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재해예 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하 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붕괴 유실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향후에도 시는 국비 등 예산을 확보 해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해나갈 계획 이다. /채규남 기자

지적능력 부족한 또래 성폭행 10대 실태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 사)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또래 여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기 소년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 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 대해 성폭력 처 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1월 전주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사건 범행 약 2주 전에 도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지적 능력이 또래 에 비해 떨어지는 B양을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시계를 가져간 뒤 '네 시계를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드러났다. /이상민기자

A군은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B양이 먼저 (나를) 유혹해 스킨십을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것"이 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직후 A군이 B양에게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진심으로 미안해 라는 내용의 SNS 메 시지를 보낸 점, 이들의 평소 관계 등 에 비춰볼 때 B양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A군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 추행 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 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 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